

## 함안 성산산성 제17차 발굴조사 출토 목간 자료 검토

New wooden tablets were excavated from the Seongsansanseong Fortress

---

저자 (Authors)	최장미 Choi, Jang-mi
출처 (Source)	<a href="#">목간과문자 18</a> , 2017.6, 191-217(27 pages) <a href="#">Wooden Documents and Inscriptions Studies 18</a> , 2017.6, 191-217(27 pages)
발행처 (Publisher)	<a href="#">한국목간학회</a> The Korea Society for The Study of Wooden Documents
URL	<a href="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202973">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202973</a>
APA Style	최장미 (2017). 함안 성산산성 제17차 발굴조사 출토 목간 자료 검토. 목간과문자, 18, 191-217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210.178.101.*** 2020/03/25 13:30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함안 성산산성 제17차 발굴조사 출토 목간 자료 검토

최장미\*

- I. 머리말
- II. 함안 성산산성 출토 목간의 개요
- III. 함안 성산산성 17차 발굴조사 출토 목간 현황
- IV. 맺음말

### 〈국문초록〉

함안 성산산성(사적 제67호)유적은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가 1991년 발굴조사를 시작하여, 1992년에 동성벽 부근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목간 2점이 확인되어 주목을 받았다. 이후 동성벽 안쪽의 부엽층에서 308점의 목간이 출토되어, 우리나라 단일 유적으로는 최대 목간 출토지가 되었다. 고대사 연구를 위한 기록문화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당시 사람들이 쓴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목간 사용 시기의 지역명, 인명, 조세체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획득할 수 있었다.

본고에서는 2014~2016년에 진행된 함안 성산산성 제17차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목간 23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사면에 모두 목서가 있는 사면목간으로, 기존 성산산성에서 확인되지 않은 경위 관등명(大畝)이 확인되고, '무슨 법 30대', '60일 대법' 등 당대 율령체제를 엿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문서목간이다. 그 외에도 구리벌의 2가지 표기법, 외위 관등명인 거벌척(居伐尺) 등도 확인되어, 우리나라 목간 연구뿐만 아니라 고대사 연구에 획기적인 성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 **핵심어** : 함안 성산산성, 부엽층, 목간, 목서

\*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 I. 머리말

함안 성산산성(사적 제67호)유적은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가 1991년 발굴조사를 시작하여, 1992년에 동성벽 부근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목간 2점과 함께 목제품, 씨앗, 토기 등이 확인되어 주목을 받았다. 이후 동성벽 안쪽의 부엽층에서 총 308점<sup>1)</sup>의 목간이 출토되어, 우리나라 목간 연구뿐만 아니라 고대사 연구에 획기적인 성과를 가져왔다.

함안 성산산성이 위치한 조남산 정상부는 북쪽이 높고 남쪽으로 가면서 낮아지다가 다시 조금 높아지는 오목한 형태이며, 서에서 동으로는 자연경사를 이루며 낮아져, 산성 내부의 물이 동성벽 부근으로 모여서 동쪽의 계곡으로 흘러내려간다. 물의 흐름이 많아 성벽이 붕괴되기 쉬운 곳에 위치한 동성벽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동성벽 안쪽으로는 암거시설, 부엽공법<sup>2)</sup> 등과 같은 배수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함안 성산산성 동성벽 안쪽에 조성된 부엽층은 남북으로 긴 장타원형(길이 49m, 폭 12.6m, 최대 높이 2.4m)으로, 내부에서 목간을 비롯한 목기와 토기, 동물뼈, 씨앗류, 초본류 등이 출토되었다. 비교적 넓은 범위의 부엽층을 축조하기 위해 단시간에 많은 식물유기물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목간도 이러한 필요에 의해서 용도를 다하고 난 후 식물유기물 대응으로, 의도적으로 매몰된 것임을 추정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부엽층에서 출토된 함안 성산산성의 목간의 특징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된 17차 발굴조사를 통해 출토된 목간 23점을 상세히 검토하고자 한다.

## II. 함안 성산산성 출토 목간의 개요

함안 성산산성에서 출토된 목간 중 목서가 확인되는 것은 모두 255점이며, 그중 양쪽 면에 목서가 되어 있는 목간은 89점, 한쪽 면에만 목서가 있는 것이 163점이다. 또한 사면에 모두 목서가 되어 있는 목간도 3점이 출토되었다.

목간의 목서는 세로쓰기하여 뭉기홈이 아래로 향하도록 목서한 것이 압도적으로 많다.<sup>3)</sup> 목간을 자세히 살펴보면, 목간에 목서를 한 시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의 목간의 경우 뭉기홈 아래까지 목서가 끊어지지 않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물품에 매달기 전에 목서하고 끈으로 묶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의 목간은 뭉기홈에 끈을 묶은 후 목서하여, 글자의 아래 부분이 끈에 쓰였고, 끈이 없어진 지금

- 1) 현재 목간으로 보고한 수량은 308점이나, 그중 목간형 목기로 분류될 유물도 다수 보이기 때문에, 최종 보고서에서는 목간의 총 수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2) 부엽공법은 물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곳에 나뭇잎이나 나뭇가지 등 식물유기물을 점질토와 함께 인위적으로 깔아서 수량과 수압을 약화시켜 흙이 쓸려나가는 것을 방지하거나, 연약지반을 보강하는 역할을 하는 공법이다.
- 3) 전체적인 형태를 파악할 수 있는 목간 중 단지 8점만 상단에 뭉기홈이 있고, 그 외는 모두 하단부에 뭉기홈이 있다. 8점 중 2점이 '仇伐'명 목간이다.



그림 1. 물품에 매달기 전 묵서한 목간



그림 2. 묵기흠의 끈을 매단 후 묵서한 목간



그림 3. 구멍을 피해서 묵서한 목간

은 글자의 아래획이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오른쪽의 글자도 끈 때문에 위로 비껴서 쓰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3>의 목간은 하단부에 끈을 달기 위해 구멍을 뚫은 뒤 묵서를 하여, 글자가 구멍을 피해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다.

함안 성산산성 목간은 다수의 지역명이 확인되었다. 지역에 따라 목간의 형태적인 차이는 명확하진 않으나, 구리별 목간은 묵서하는 방법이 다른 목간과는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구리별 목간의 경우 구리별을 크게 상단부 중앙에 쓰이고, 아래에 2줄로 기재하는 방식이 대부분이다. 또한 크기가 비교적 큰 편임에도 불구하고 앞면에만 2줄 기재 방식을 취하고 있어 특징적이다.

출토된 목간은 외형적으로 보면 세장방형의 나무판과 비슷하다. 그중 크기가 가장 큰 목간은 길이 34.7cm, 너비 2.9cm, 두께 0.6cm로 「甘文城」이 기재되어 있는 목간이다. 「仇利伐」 지명이 쓰여 있는 목간은 크기가 대체로 길이 25cm, 너비 3.1cm 이상으로 큰 편이며, 가장 크기가 작은 묵서목간은 길이 12cm 내외의 목간이다.

함안 성산산성에서 확인된 목간의 형태는 대부분 단부에 <자형 절입부를 파거나, 구멍을 뚫어 끈으로 묶어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곡물꾸러미와 같은 물품에 매달 수 있도록 제작한 것으로, 물품의 표식을 위한 꼬리표로 부착된 목간임을 알 수 있다. 출토된 목간 중 절입부에 끈이 묶여 남아 있는 것이 1점 확인되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간혹 절입부나 구멍이 없는 목간일 경우 단부를 뾰족하게 깎은 형태도 확인되는데, 이는 물품에 바로 꽂을 수 있도록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목간을 제작한 나무는 침엽수인 소나무가 75% 이상으로 확인되었고, 활엽수인 버드나무 5.6%, 상수리 나무류 2.48%의 비율로 출토되었다.<sup>4)</sup> 이는 함안 성산산성에서 출토된 목기들의 수종들과 비교하면, 큰

4) 국내에서 출토된 목간의 수종도 함안 성산산성과 크게 차이가 없다. 소나무가 74%, 밤나무류가 5.9%, 버드나무류가 3.3%이다.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5, 『함안 성산산성 발굴에서 보온까지』, p.83.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sup>5)</sup>

함안 성산산성에서 출토된 목간의 목서는 육안으로 뚜렷하게 관찰되는 것은 일부이고, 대부분 적외선 카메라로 사용하여 확인 가능하다. 적외선 카메라로 확인된 함안 성산산성 목간에 기록된 문자를 보면 크게 지명, 인명, 곡물명으로 나눌 수 있다.

함안 성산산성에서 확인된 지명으로는 구리벌(仇利伐), 고타(古陀), 급벌성(及伐城)이 많이 출토되었고, 감문성(甘文城), 하기(下機) 등도 확인되었다. 이는 『三國史記地理志』에 보이는 신라 상주(尙州)지역의 범위 안의 지역들로, 대체로 낙동강의 수계에 위치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 수운을 활용하여 물자를 제공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물자를 공진한 인명으로는 거리지(居利支), 구잉지(仇仍支), 아나휴지(阿那休智), 아나설지(阿那舌只), 내은지(內恩知), 파루(波婁) 등이 확인되는데, 이들 支, 智, 只, 知로 끝나는 것은 신라인명 표기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함안 성산산성 목간에서 확인되는 관등명은 대체로 외위(外位) 관등명인 상간(上干), 일벌(一伐), 일척(一尺) 등이 확인되었는데, 이번 17차 발굴조사에서 경위(京位) 관등명인 대사(大舍)도 확인되었다. 또한 『삼국사기』 직판지에는 확인되지 않은 급벌척(及伐尺), 거벌척(居伐尺)이라는 관등명도 확인되어 흥미롭다. 물품명으로 확인되는 것은 대부분 곡물인데, 麥, 米, 稗 등의 글자가 출토되었고, 十五石, 一石, 十五斗 등의 도량형도 확인되었다.

함안 성산산성에서 확인된 목간은 대부분이 하찰목간이지만, 4면에 목서가 기재되어 있는 문서목간도 3점이 확인되었다. 그중 대체로 판독이 가능한 2점(城221<sup>6)</sup>, 17차 사면목간)의 목간은 서두에 '~月中', 결미 부분에 '白之', '之白'이 기재되어 있는 형식이 매우 유사하다.<sup>7)</sup> 그러나 城221번 목간은 하단부에 끈을 맬 수 있도록, 홈을 마련하고 있으나, 나머지 2점의 목간은 장방형의 직사각형 형태에서 차이점을 보인다.

목간의 제작시기에 대해서는 학계 내 다양한 이견이 존재한다. 목간의 제작시기와 하한은 목간이 출토된 부엽층의 조성 시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나아가 함안 성산산성의 체성벽의 조성 시기와의 연결된다.

함안 성산산성 발굴조사단은 부엽층, 체성벽, 이중성벽, 배수시설 등이 공정상의 선후관계는 있을 수 있으나 단일계획하에 축조되었다고 판단하였다.<sup>8)</sup> 반면 이주현은 부엽층이 성벽 축조에 앞서 우선적으로

5) 함안 성산산성에서 출토된 목기의 수종은 용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농기구와 공구류는 상수리나무류, 용기는 산벚나무류와 밤나무류, 빗은 박달나무류가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함안 성산산성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목재를 사용하였고, 각각의 재질특성을 파악하고 목기를 제작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1, 『함안 성산산성의 목제유물과 활용』, p.22.

6)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가 발간한 『韓國 木簡字典』의 목간 번호를 지칭한다.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1, 『韓國 木簡字典』

7) 城223번 목간의 서두는 '二月'로 시작하고 있다.

8)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4, 『함안 성산산성 발굴조사보고서 V』, p.169.

조성되었으며, 부엽층에서 출토된 토기의 기종과 형태적인 특징을 통해, 산성은 7세기 전반의 늦은 시기에 축조되었으며, 목간의 사용과 폐기 시점 하한도 7세기 전반으로 보았다.<sup>9)</sup> 윤상덕은 부엽층이 산성 축조 직전에 일시에 조성된 것이 아니며, 일정기간 산성이 운영되다가 조성된 것이며, 출토 토기로 보아 성벽의 초축연대는 6세기 중엽, 부엽층은 7세기 초, 부엽층 내 목간은 6세기 중엽~후엽으로 추정하였다.<sup>10)</sup> 목간 연구자들은 목간에서 확인된 외위와 지역명을 통해 목간의 작성 시기는 560년 전후한 시기에 제작되었다고 보는 의견이 많다.<sup>11)</sup> 그러나 17차 발굴조사 출토 20번(W155) 목간에서 ‘王子寧(왕자녕)’ 목서를 ‘壬子年(임자년)’으로 보고, 그 연대를 592년으로 보는 의견도 있다.<sup>12)</sup> 목간의 제작시기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더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III. 함안 성산산성 17차 발굴조사 출토 목간 현황

함안 성산산성 제17차(2014~2016년) 발굴조사는 함안 성산산성의 부엽층과 동성벽, 배수시설 간의 축조관계와 특징을 파악하였다. 동성벽은 단면 조사를 통해 체성부 축조 후 내·외벽에 각기 다른 형태의 보축을 하여 성벽을 견고하게 만들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부엽층의 전체 규모와 평면형태가 드러났으며, 부엽층 가



그림 4. 함안 성산산성 동성벽과 부엽층 범위

9) 이주현, 2015, 「함안 성산산성 부엽층과 출토유물의 검토」, 『중앙고고연구』 16.

10) 윤상덕, 2016, 「咸安 城山山城 築造年代에 대하여」, 『木簡과 文字』 第14號.

11) 주보돈, 2000, 「함안 성산산성 출토 목간의 기초적 검토」, 『한국고대사연구』 19권.

이성시, 2000, 「韓國木簡연구의 현황과 咸安城山山城출토의 木簡」, 『한국고대사연구』 제19권.

전덕재, 2008, 「함안 성산산성 목간의 연구현황과 쟁점」, 『新羅文化』 第31輯.

윤선태, 2016, 「한국의 고대 목간의 연구현황과 과제」, 『선사와 고대 목기·목간의 최신 연구 현황과 과제』 학술대회 자료집.

12) 손환일, 2017, 「함안 성산산성 출토 문서목간의 의미와 서체 -17차발굴조사 성과 발표문을 중심으로-」, 제162회 신라사학 회발표회.

장자리로 올라리, 석렬 등 다양한 시설들이 유기적으로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sup>13)</sup> 출토된 목간은 모두 23점으로, 그중에 목서가 양면에 있는 목간은 10점, 한면에 있는 목간은 12점, 사면에 있는 목간은 1점으로 목간의 크기, 수종 등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함안 성산산성 17차 발굴조사 출토 목간 현황표

연번	출토번호 <sup>14)</sup>	목서	크기(길이×너비×두께) cm	수종
1	W28	양면	11.8×2.0×0.4	소나무
2	W30	단면	(7.0)×2.0×0.8~1.0	소나무
3	W33	단면	(14.0)×2.7×0.5	소나무
4	W34	단면	15.1×1.4×1.2	소나무
5	W35	양면	20.5×2.6×0.6	소나무
6	W40	양면	(10.8)×1.7×0.5~0.9	소나무
7	W44	양면	21.3×2.5×0.7	소나무
8	W61	단면	16.3×2.2×0.5	소나무
9	W62	단면	29.5×3.7×0.8	소나무
10	W66	양면	21.0×2.1×0.7	소나무
11	W67	단면	(11.7)×2.0×0.7	소나무
12	W72	양면	16.1×2.6×0.2	밤나무
13	W73	양면	(13.7)×2.1×0.3	소나무
14	W89	단면	22.3×3.5×0.4~0.9	소나무
15	W92	단면	22.0×2.8×0.5	소나무
16	W94	양면	23.0×1.8×0.9	소나무
17	W104	단면	17.6×2.8×0.4	소나무
18	W116	단면	(16.1)×2.5×0.7~1.0	소나무
19	W133	단면	22.2×2.0~2.9×0.5~1.1	소나무
20	W155	양면	22.7×4.0×0.8	소나무
21	W164	양면	20.0×1.9×0.7	소나무
22	W167	단면	(20.0)×2.0×0.5~1.1	소나무
23	W150	사면	34.4×1.0~1.9	소나무

13)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6, 『함안 성산산성 17차 발굴조사 약보고서』.

14) 함안 성산산성 17차 발굴조사 과정에서 부여된 목간 번호이다.

1) W28

양면 목서 목간으로 상부가 파손되어 전체 목서를 확인할 수 없다. 양측면 하부에 ʼ〈자형 뭉기홈이 있다. 목서는 뭉기홈이 아래를 향하도록 쓰였다. 적외선 촬영으로 확인한 목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史村□ / …□利夫稗石」

2) W30

한 면에만 목서가 확인되며, 상부가 파손되어 전체 목서를 확인할 수 없다. 하단 일부를 전체적으로 돌아가며 깎은 뭉기홈이 있다. 목서는 뭉기홈이 아래를 향하도록 쓰였다. 적외선 촬영으로 확인한 목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西毛礼」

3) W33

단면목서 목간으로 상부가 파손되어 전체 목서를 확인할 수 없다. 양측면 하부에 ʼ〈자형 뭉기홈이 나 있다. 목서는 뭉기홈이 아래를 향하도록 쓰였다. 적외선 촬영으로 확인한 목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古, 舌)□□□」

4) W34

삼면으로 된 목간이지만 목서는 한 면에만 되어 있다. 하부에 도자로 가공하여 뭉기홈이 나 있다. 목서는 뭉기홈이 아래를 향하도록 쓰였다. 끝부분에는 나무를 부러뜨려 분리한 흔적이 확인된다. 상부 일부가 결실되었지만 목서는 온전하게 남아 있다. 적외선 촬영으로 확인한 목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今(所)巴(卿)□尔斯利支稗」

5) W35

양면 목서 목간이나 뒷면에는 묵흔만 확인된다. 양측면 하부에 ʼ〈자형 뭉기홈이 있다. 목서는 뭉기홈이 아래를 향하도록 쓰였다. 적외선 촬영으로 확인한 목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盖村仇之(毛, 毛)城稗」

6) W28

양면 문서 목간으로 상부가 파손되어 전체 문서를 확인할 수 없다. 하부도 결실되었으나 묵기흠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 문서는 적외선 촬영으로도 불분명하였다. 확인된 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只□□□/ …□稗石」

7) W28

양면 문서 목간으로 완형이며, 양측면 하부에 〉〈자형 묵기흠이 있다. 문서는 묵기흠이 아래를 향하도록 쓰였다. 적외선 촬영으로도 문서가 불분명한 상태이다. 확인한 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陀一□□□/ □□□」

8) W61

목간은 완형으로 측면에 일부 수피가 남아 있다. 양측면 하부에 〉〈자형 묵기흠이 있다. 적외선 촬영으로도 문서는 불분명하며 목흔만 확인하였다.

9) W62

단면 문서 목간으로 전형적인 구리벌 지명 목간이다. 일부 결실되었지만 전체적으로 상태는 양호하다. 양측면 하부에 〉〈자형 묵기흠이 있으며, 하단부는 둥글게 다듬은 형태로 추정된다. 문서는 묵기흠이 아래를 향하도록 쓰였다. 적외선 촬영으로 확인한 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仇利伐 上三者村 □□□□」

10) W66

양면 문서 목간으로 완형이다. 육안으로도 비교적 양호하게 문서가 확인된다. 묵기흠이나 현공을 따로 조성하지 않았다. 그러나 하단부에 옹이로 인해 약간 튀어나온 부분을 활용한다면 큰 어려움 없이 끈을 매달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양측면에 수피가 남아 있으며, 상단부는 도자로 깔끔하게 가공되어 있다. 적외선 촬영으로 확인한 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丘伐未那早尸智居伐尺奴/ (旅)利知稗石」

11) W67

단면 문서 목간으로 상부가 파손되어 전체 문서를 확인할 수 없었다. 양측면 하부에 〉〈자형 묵기흠이

있다. 묵서는 묵기훤이 아래를 향하도록 쓰였다. 적외선 촬영으로 확인한 묵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身礼豆智」

#### 12) W72

양면 묵서 목간으로 완형이다. 판독이 불가능한 상태로 묵서의 흔적만 남아 있다. 양측면 하부에 '〈자형 묵기훤이 있다. 묵서는 묵기훤이 아래를 향하도록 쓰였다. 적외선 촬영으로 확인한 묵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上, 丈)□…/ …(利)…」

#### 13) W73

양면 묵서 목간으로 하부가 파손되어 전체 묵서를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묵서 후 목간의 오른쪽 부분을 삭도하여, 오른쪽 부분의 묵서는 흐릿하다. 적외선 촬영으로 확인한 묵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巾, 中)夫支城仇智支稗…/ 묵흔」

#### 14) W89

단면 묵서 목간으로 전형적인 구리벌 지명 목간이다. 일부 결실되었지만, 전체적으로 상태는 양호하다. 양측면 하부에 '〈자형 묵기훤이 있다. 구리벌의 표기법이 W62, W92와는 차이가 있어 주목된다. 묵서는 묵기훤이 아래를 향하도록 쓰였다. 적외선 촬영으로 확인한 묵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丘利伐(卜, 上)今智上干支奴負」(徐)利巴支

#### 15) W92

단면 묵서 목간으로 전형적인 구리벌 지명 목간이다. 전체적으로 상태는 양호하다. 양측면 하부에 '〈자형 묵기훤이 있다. 묵서는 묵기훤이 아래를 향하도록 쓰였다. 적외선 촬영으로 확인한 묵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仇利伐 夫□知一伐負」 宀巴利□

#### 16) W94

양면 묵서 목간으로 하단부 묵기훤 부분이 결실되었다. 묵서는 육안으로도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묵서는 묵기흠이 아래를 향하도록 쓰였다. 적외선 촬영으로 확인한 묵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甘文城下麥十五石甘文本波/ (伊)負只去之」

17) W104

단면 묵서 목간으로 오른쪽 하단 일부가 결실되었으나 묵서 판독에는 어려움이 없다. 양측면 하부에 '〈자형 묵기흠이 있다. 특히 이 목간에는 초본류로 엮어 만든 약 0.4cm 두께의 얇은 끈이 묵기흠에 남아 있다. 묵서는 묵기흠이 아래를 향하도록 쓰였다. 적외선 촬영으로 확인한 묵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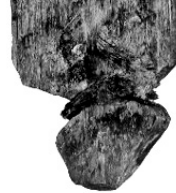


그림 5. 묵기흠의 끈

「沙塚部負」

18) W116

단면 묵서 목간으로 하부가 파손되어 전체 묵서를 확인할 수 없다. 양측면 수피가 일부 남아 있다. 적외선 촬영으로 확인한 묵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小□□城麥十五斗石大村…」

19) W133

단면 묵서 목간으로 전체적인 형태는 양호하나, 묵서는 적외선 촬영으로도 판독할 수 없었고, 네 글자가 쓰여 있는 것만 추정할 수 있었다.

「□□□□」

20) W155

양면 묵서 목간으로 양측면 하부에 '〈자형 묵기흠이 있다. 묵서는 묵기흠이 아래를 향하도록 쓰였다. 〈王子寧〉으로 판독한 부분을 〈壬子年〉이라는 의견도 제시되었다.<sup>15)</sup> 우리 연구소는 위에서 세 번째 글자를 적외선 촬영으로 확인하였을 때, 〈年〉으로 보기에 묵서가 비교적 복잡하다고 생각되어, 〈寧〉으로 판독하였다. 함안 성산산성에는 〈年〉자가 확인되지 않아, 비교할 수 없었으나, 안압지에서 출토된 것을 비교해 보았을 때 획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으로 더 자료 검토를 통해 밝히도록

15) 손환일, 2017, 『함안 성산산성 출토 문서목간의 의미와 서체 -17차발굴조사 성과 발표문을 중심으로-』 제162회 신라사학 회발표회.



그림 6. W155 '寧'



그림 7. 城219 '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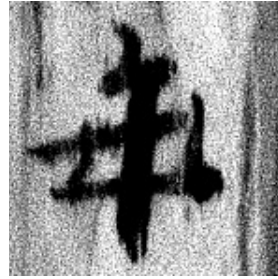


그림 8. 雁'年'

하겠다. 적외선 촬영으로 확인한 목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王子寧□□大村□刀只/ 米一石」

#### 21) W164

양면 목서 목간으로 완형이다. 양측면 하부에 `〈자형 뭉기홈이 있다. 목서는 뭉기홈이 아래를 향하도록 쓰였다. 목서 후 왼쪽부분을 삭도하여, 왼쪽부분의 목서가 불분명하다. 적외선 촬영으로 확인한 목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利□一負/ 六石□□□」

#### 22) W167

단면 목서 목간으로 일부 파손되었지만 비교적 양호한 상태이다. 양측면 하부에 `〈자형 뭉기홈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결실되었다. 목서는 뭉기홈이 아래를 향하도록 쓰였다. 적외선 촬영으로 확인한 목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此發□德石莫杖(之,乙)」

#### 23) W150<sup>16)</sup>

사면 목서 목간으로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확인되었다. 하찰목간이 아닌 문서목간으로 세장방향의 형태를 하고 있다. 적외선 촬영으로 확인한 목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6) 최장미, 2017, 「함안 성산산성 17차 발굴조사 출토 목간 자료 검토」, 「제 25회 한국목간학회 정기발표회」에서 발표했던 목간의 판독순서를 수정하였다.

「三月中眞乃滅村主懼怖白/ □城在弥卽尔智大舍下智前去白之/ 卽白先節卒日代法稚然/ 伊他罹及伐尺案言□法卅代告今卅日食去白之」

함안 성산산성 17차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목간 23점 중 4점은 적외선 촬영을 통해서도 목서 내용을 판독하기 어려웠지만, 그 외의 대부분의 목간들은 적외선 촬영을 통해 양호한 상태의 목서판독을 진행할 수 있었다.

17차에 출토된 목간 중 지명이 확인된 것은 모두 6점으로, 구리벌 목간이 3점 출토되었고, 구벌, 감문성, 진내멸촌이 각 1점씩 확인되었다. 그중 구리벌 목간은 「仇利伐」, 「丘利伐」로 두 가지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기왕에 출토되었던 「仇利伐 上多者村…」, 「甘文城下麥…」 목간도 확인하였다.

관등명으로는 대사(大舍), 상간지(上干支), 일벌(一伐), 급벌척(及伐尺), 거벌척(居伐尺) 등이 출토되었다. 특히 사면목간에서 확인된 大舍는 경위(京位) 관등명으로는 처음으로 함안 성산산성에서 출토된 것으로 매우 주목된다. 그동안 함안 성산산성에서 확인된 관등명은 모두 외위(外位) 관등명이었으나, 사면목간에서 大舍 관등명이 확인됨에 따라, 함안 성산산성이 중앙 정부의 지배체제 내에 있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번 17차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목간 중 문서목간인 사면목간은 매우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 이전에 2점의 사면목간과 문서목간이 출토되었지만, 17차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목간은 56자 중 2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판독이 가능하여, 그 내용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었다. 판독에 따른 해설은 다음과 같다.

- 1면: 3월에 진내멸촌주(眞乃滅村主)가 두려워하며 삼가 아뢰입니다.
- 2면: □성에 계신 미즉이지(弥卽尔智)대사(大舍)와 하지(下智) 앞에 나아가 아뢰입니다.
- 3면: 앞선 때에는 60일을 대법(代法)으로 하였었는데, 저의 어리석음을 아뢰입니다.
- 4면: 이타리(伊他罹) 급벌척(及伐尺)이 □법에 따라 30대라고 고하여 지금 30일을 먹고 가 버렸다고 아뢰입니다.

즉, 진내멸촌주가 중앙 출신 관리에게 올린 보고서 형식의 문서목간으로, 보고 주체는 진내멸촌주이고 보고받는 이는 미즉이지대사와 하지이다. 이를 통해 문서행정이 지방사회에서 구체적으로 실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목간의 내용을 통해 6세기 신라시대 법률인 율령체제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성과다. “무슨 법 30대”, “60일 대법” 등은 30일, 60일의 기간을 가진 법률적인 용어로, 당시 신라 지방사회까지도 율령을 통한 엄격한 지방 지배체제가 확립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 IV. 맺음말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에 의해 1991년부터 2016년에 걸친 함안 성산산성 발굴조사가 일단락을 맺었다. 발굴기간은 오래되었지만, 연구소의 예산과 현장 사정으로 인해 실작업일수는 많지 않아서, 함안 성산산성 전모를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지형적인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조성한 부엽층이라는 존재를 확인한 것과 더불어 그 안에서 300점이 넘는 당대인이 쓴 기록자료가 출토된 것은 매우 큰 수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17차 발굴조사의 마무리 단계에서 출토된 사면목간은 기존에 성산산성에서 확인되지 않은 경위 관등명이 확인되고, 당대 율령체제를 엿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그 외에도 구리벌의 2가지 표기법, 거벌척(居伐尺) 관등명 등도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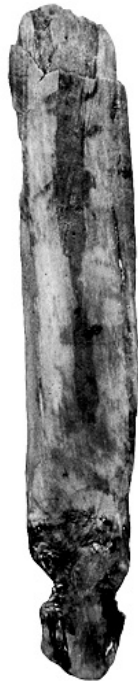
2017년에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는 『함안 성산산성 발굴조사보고서 VI』과 『韓國의 古代 木簡 II - 함안 성산산성』을 발간하고, 다양한 융복합 연구도 계획 중이다. 목간 묵서 판독에서 한발 더 나아가 당대 사회를 복원할 수 연구자료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투고일: 2017. 4. 28.

심사개시일: 2017. 5. 4.

심사완료일: 2017. 5. 24.

-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1, 『韓國 木簡字典』.
-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1, 『함안 성산산성의 목제유물과 활용』, p.22.
-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4, 『함안 성산산성 발굴조사보고서 V』, p.169.
-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5, 『함안 성산산성 발굴에서 보존까지』, p.83.
-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6, 『함안 성산산성 17차 발굴조사 약보고서』.
- 손환일, 2017, 『함안 성산산성 출토 문서목간의 의미와 서체 -17차발굴조사 성과 발표문을 중심으로-』 제162회 신라사학회발표회.
- 윤상덕, 2016, 『咸安 城山山城 築造年代에 대하여』, 『木簡과 文字』 第14號.
- 윤선태, 2016, 『한국의 고대 목간의 연구현황과 과제』, 『선사와 고대 목기·목간의 최신 연구 현황과 과제』 학술대회 자료집.
- 이성시, 2000, 『韓國木簡연구의 현황과 咸安城山山城출토의 木簡』, 『한국고대사연구』 제19권.
- 이주현, 2015 『함안 성산산성 부엽층과 출토유물의 검토』, 『중앙고고연구』 16.
- 전덕재, 2008, 『함안 성산산성 목간의 연구현황과 쟁점』, 『新羅文化』 第31輯.
- 주보돈, 2000, 『咸安 城山山城 出土 木簡의 基礎的 檢討』, 『한국고대사연구』 제19권.



1번 목간 앞



1번 목간 뒤



2번 목간 앞



2번 목간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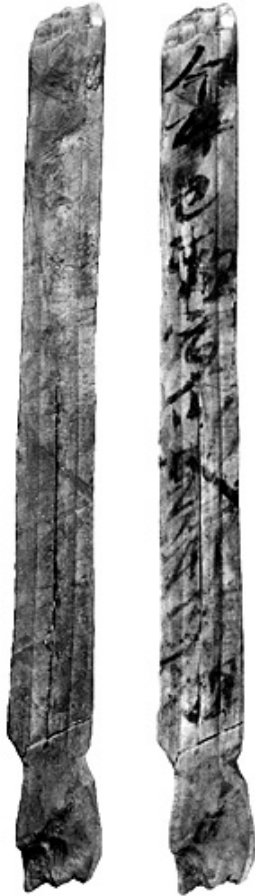




3번 목간 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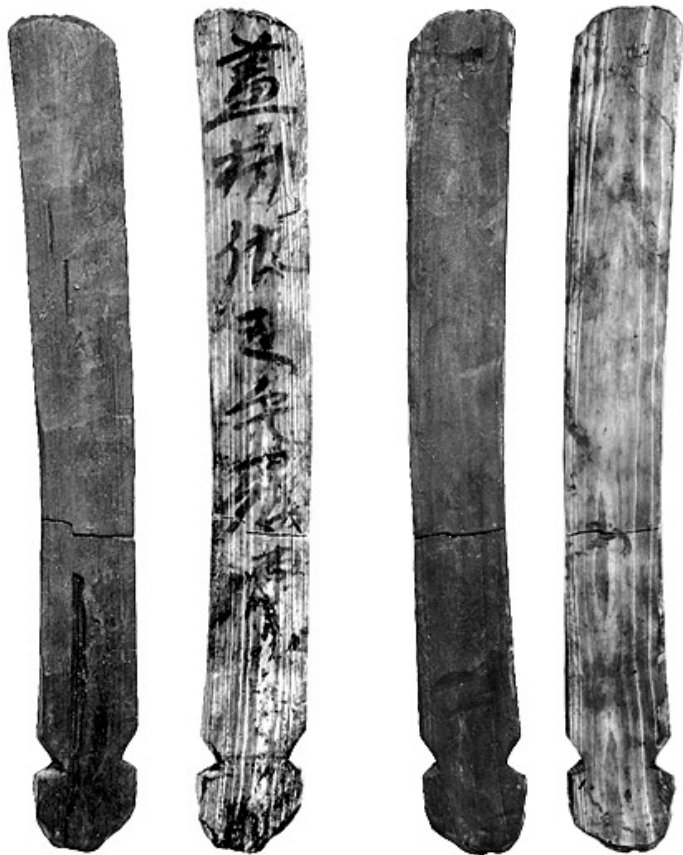
3번 목간 뒤



4번 목간 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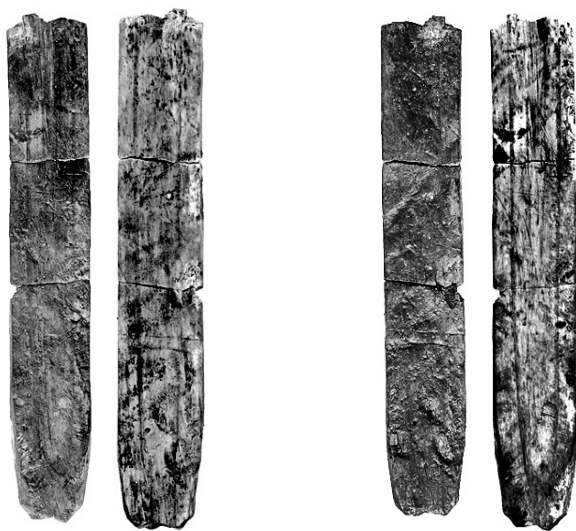


4번 목간 뒤



5번 목간 앞

5번 목간 뒤



6번 목간 앞

6번 목간 뒤



7번 목간 앞



7번 목간 뒤



8번 목간 앞



8번 목간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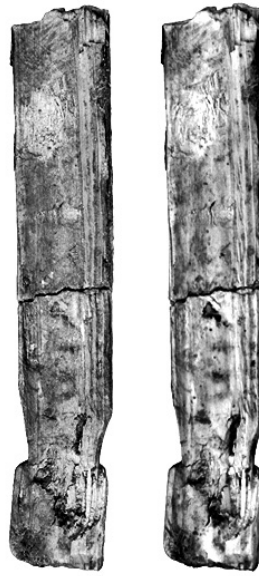
9번 목간 앞



9번 목간 뒤



11번 목간 앞



11번 목간 뒤



10번 목간 앞



10번 목간 뒤



12번 목간 앞



12번 목간 뒤



13번 목간 앞



13번 목간 뒤



14번 목간 앞



14번 목간 뒤



15번 목간 앞



15번 목간 뒤



17번 목간 앞



17번 목간 뒤



16번 목간 앞



16번 목간 뒤



18번 목간 앞



18번 목간 뒤



19번 목간 앞



19번 목간 뒤



20번 목간 앞



20번 목간 뒤



21번 목간 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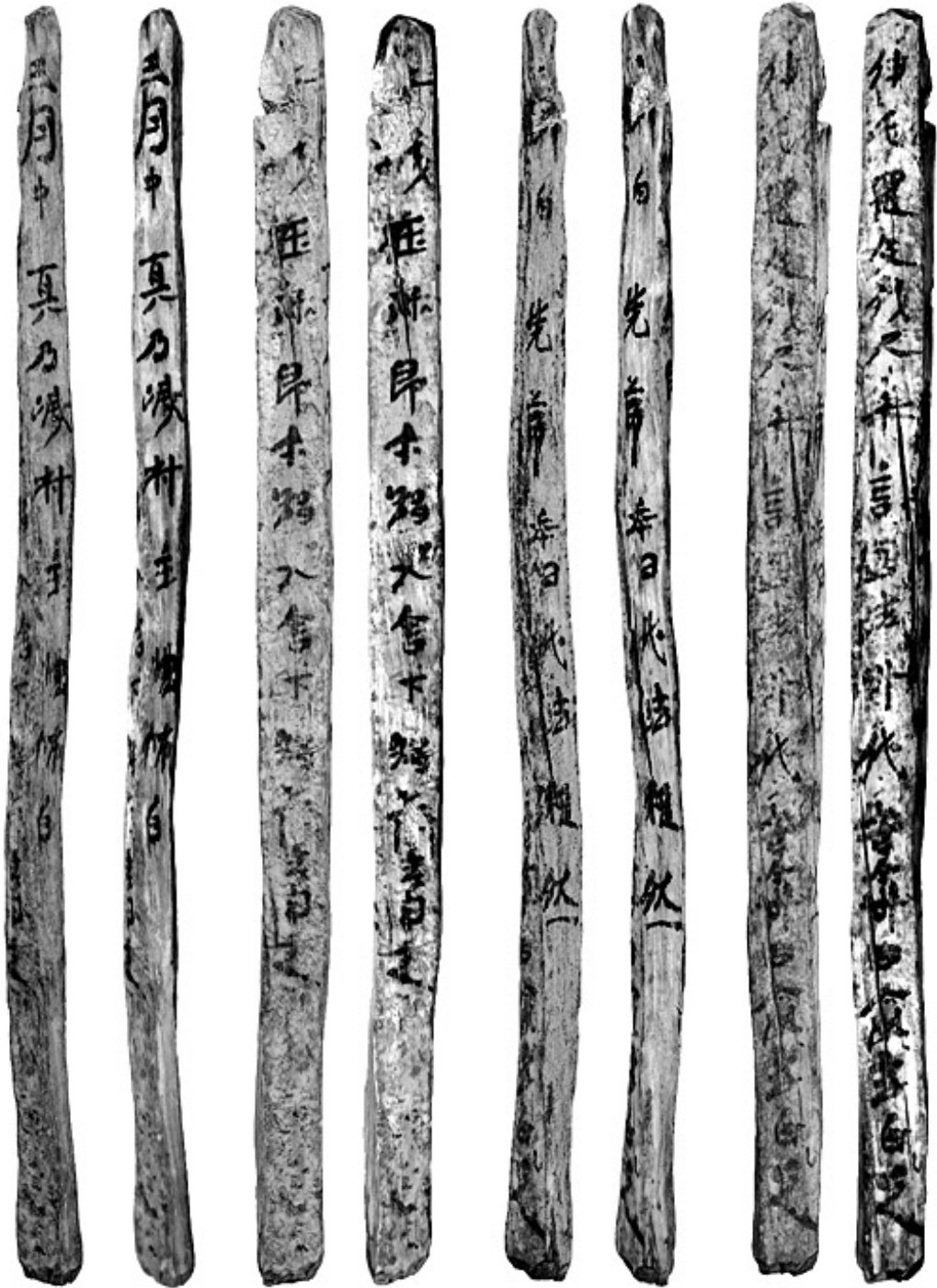
21번 목간 뒤



22번 목간 앞



22번 목간 뒤



23번 목간 1면

23번 목간 2면

23번 목간 3면

23번 목간 4면

<Abstract>

New wooden tablets were excavated from the Seongsansanseong Fortress

Choi, Jang-mi

Since 1991, the Gaya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has been surveying Seongsansanseong Fortress. Meanwhile, since the initial discovery of two mokgan (wooden writing tablets) during the 1992 investigation, nearly 308 other such tablets were discovered in the section near the east gate site, making this site the largest archaeological site in the country, in terms of wooden writing tablets. Those are rich sources of historical information that they offer precious clues about the lifestyle, name of person and tax system that during the period in which the fortress was in use.

This research paper was studied about 23 of wooden writing tablets that discovered during 2014 to 2016 and one wooden writing tablet that the inscription are written in ink on four side was found. The interesting thing is, it contains specific character which represents social class in Silla (particularly in capital, Gyeongju) such as 大舍 and law system such as □代, 60日代法. Moreover Guribul(仇利伐, the one place name of Silla) were confirmed on wooden tablet and it was written in two different types.

I hope that this research contribute not only wooden writing tablets studies but also primary sources of ancient history and valued for glimpses of ancient societies they provided.

▶ Key words: Seongsansanseong Fortress, wooden writing tablets